

남아시아 여성만의 전승문화, 광주서 만나다

ACC 상설전시 '이달의 소장품: 미틸라 회화'

아시아문화박물관서 3월3일까지 남아시아 회화작·공예품 등 선배 힌두 신화 주제로 자연·일상 표현 "성별 차이 극복해 내는 문화활동"

남아시아 지역 여성사이에서만 세대 전승으로 전해져 온 문화를 광주에서 접할 수 있게 됐다.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따르면 문화정보원 아시아박물관에서는 '이달의 소장품: 미틸라 회화' 전시가 열리고 있다.

미틸라 회화는 네팔과 인도의 국경지대에 있었던 고대 미틸라(Mithila) 왕국의 수도 자낙푸르를 중심으로 여성에 의해 그려진 전통 회화다. 태양, 달과 같은 자연 요소와 물고기, 코끼리 등의 동식물, 사람들의 일상생활 등을 힌두 신화를 주제로 밝고 화려한 색상으로 작업한 결과물들이다.

미틸라 회화의 독특한 특성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계승됐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집 외벽에 그려진 벽화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는 종이로 이동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일상용품으로 확장돼 현대적 주제도 다루며 지역의 상징으로 자리 잡

았다.

이번 전시는 미틸라 회화와 공예품을 소개하고 남아시아 여성들의 전통문화와 생활 방식을 엿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ACC는 지난 2017년 남아시아 문화 인류학을 전공하는 김경화 전남대 교수에 의뢰해 '아시아의 디자인- 남아시아 전통 의례예술 연구'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네팔 자낙푸르와 인도 마두바니 지역에서 조사·수집한 미틸라 회화 작품, 제작도구 세트 등 총 175점 중 일부를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다.

네팔은 1년 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는 다채로운 문화적 소재로 가득한 국가다.

그 중에서도 미틸라 회화는 지역의 예술적 가치와 아름다움이 특히 강조된 유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독특하고 희귀하다.

네팔 동남부의 자낙푸르와 인도 동북부 마두바니 지역, 즉 과거 미틸라 왕국의 영역에서 전해진 전통 의례예술로 역사의 계승이라는 점 역시 흥미를 자극한다.

이 지역의 마을 여성들은 큰 축제나 마을 행사가 열릴 때마다 집과 마을 벽에 신과 관련된 의례 그림을 그린다. 이들은 농사와 집안일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주



'이달의 소장품: 미틸라 회화' 전시에서 남아시아의 전통 회화와 공예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민이지만, 동시에 미틸라 회화를 이어가는 전승자들이다. 할머니에서 어머니, 다시 딸로 이어지는 세대 전승을 통해 집의 흥벽에 삶의 풍경과 자연 숭배, 힌두교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려왔다.

마을의 성인 여성 대부분이 기본적인 벽화를 그릴 수 있고 이 전통은 여성 간 세대 전승을 통해 이어진다. 현대에 들어 미틸라 회화는 캔버스에 그려지면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미틸라 회화가 가장 큰 꽃을 피울 때는 '몬순(Monsoon)'이라 불리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때다.

이 시기에 네팔은 추수기를 맞이하는데 신에게 감사하며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를 개최한다.

그 대표적인 축제가 '티하르'다. 닷새 동안 이어지는 티하르 기간 마을 여성들은 바로 미틸라 회화를 마을 곳곳에 장식한다.

네팔에서는 티하르 기간 미틸라 회화를 통해 신들을 집으로 초대한다고 믿는다. 인간과 공존하며 살고 있는 모든 생명과 축복을 나누는 독특한 전통으로 힌두교 신화와 신들을 주제로 한 미틸라 회화는 축제의 영적인 의미를 시각적으로 드러내

고 축복의 시간을 함께하는 매개체가 된다.

미틸라 회화는 지역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에도 기여했다. 외출하는 것조차 심하게 통제받던 여성들이 벽화 작업을 펼친 것은 단순한 전통을 넘어 자립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심효운 ACC 학예연구사는 "미틸라 회화는 단순한 벽화를 넘어 지역의 생활상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양식으로 성장해왔다.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 자연을 재료로 쓰며 발굴한 그림 작업의 순환 구조는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이라며 "특히 지역 여성들이 그린 회화작들이 상업화로 이어지며 여성들도 수입이 생겼고 남성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이뤄 해외 진출, 지위 상승 등 성별의 차이를 극복해 내는 일종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미틸라 회화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담긴 활동으로 확장됐다. 여성의 역할과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메시지, 폭력 반대, 경제적 자립과 같은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회화작들이 이를 입증한다.

미틸라 회화 진열장 바로 옆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난해 11월 방영된 EBS 특집 다큐멘터리 '위대한 유산 남아시아'는 관람객들이 이들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새해도 문학·출판계 한강 열풍 뜨겁다

종합 베스트셀러 부동의 1위 소설 분야 강세로 이어져 올해 한강 신작 출간 기대감

새해도 문학·출판계에 한강 열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마지막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9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오월문학의 흥풍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2위와 3위도 모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와 '작별하지 않는다'가 각각 올랐다.

광주 5·18을 조명한 소설 '소년이 온다'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뒤 내려오지 않고 있다.

소설 '소년이 온다'는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지난해 10월 3주부터 12월 3주까지 10주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고 이달 첫째 주에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에 출판업계는 새해도 한강 열풍을 필두로 소설 분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강 작가의 '겨울 3부작' 마지막 작품이 이르면 올해 안에 출간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한강은 '겨울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을 지난해 겨울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노벨상 수상으로 인해 다소 늦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출판사 문학동네 관계자는 "한강의 신작은 노벨문학상 수상 후 첫 출간작으로서 새로운 지향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 기자

지역 신진연구자들의 협업 연구 공유회 '삽질과 디깅'

내일 광주시립미술관서 개최 협업 워크숍 결과 발표 형식

지역 신진연구자들의 창의적 협업과 탐구 활동을 기반으로 한 연구 내용을 대중에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8일 광주시립미술관에 따르면 오는 10일 '삽질과 디깅(사진)' 공유회가 동시대 미술 주제 발굴에 흥미를 가진 창작자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본관 1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1달간 신진연구자들의 협업 워크숍을 진행해 지역 미술의 의미있는 키워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연구 워크숍의 과정을 선보이고 각 연구원이 흥미를 가지고 파헤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강민형 바림 디렉터와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3명의 신진연구자 백인우, 손진경, 전우주가 참여한다.

각 연구자는 △국내의 인종차별 문제와 역사 속의 순혈주의를 기존의 미술사와 연계 △네오·샤머니즘(Neo-Shamanism)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족적 정서인 토속 신앙 및 의식문화를 타 문화권과 연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고유문화 자산이 예술 언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타 문화에서 어떻게 읽힐지 고찰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좋아하는 분야를 파고든다는 신조어

'디깅(digging)'은 무언가를 파고들다가 뒤를 돌아보면 때로는 그것이 현실성 없는 삽질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번 공유회는 '파고든다'라는 뜻을 가진 두 개의 다른 단어(삽질과 디깅)를 오가는 연구 과정을 통해 어렵지만 한 동시대의 지역성에 대한 생각을 관객들과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김준기광주시립미술관장은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주제 발굴을 위해 추진된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신진연구자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연구자들의 창의적 제안이 광주 예술의 새로운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유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062-613-7133)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지난 4일 오전 8시41분께 광주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하고 있다. 독자 제공

문체부,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화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건설공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점검 강화 등 작업환경 개선 "전체 공사일정 영향 최소화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4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한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화재 방지 대책에는 건설공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옛 전남도청의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로 현재까지

는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겸임해 왔다.

이번 화재는 문체부가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기 위해 공사하고 있는 경찰국 본관 3층에서 천장의 철재 구조물을 절단·절거 작업하는 중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접 단열재가 소실되는 등 소방 당국 추산 약 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경찰국 본관은 지난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건립 시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내부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형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원형이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였다. 화재로 소실된 단열재는 복원하는 과정에서 절거할 예정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건물에 대해 약 1개월 소요되는 외부 전문가의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정확한 구조물 피해 규모를 파악·조치한 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건물 외 나머지 5개 동에 대한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해 전체 공사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5·18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복원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장 내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해 옛 전남도청을 충실하게 복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